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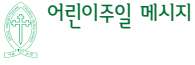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자손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세대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생명의 복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바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에 보면 어린이들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호칭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저 “어린 것들”이라고 불렀고, 집안의 자녀들을 일컬을 때도 “아들 놈, 딸 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방정환, 마해송, 윤극영 선생님과 같은 선각자들이 나타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어린이들에게 있음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각자들이 1922년 일본 동경에 모여 색동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음세대인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무시당하고 비하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고, 품어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실상 다음세대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음세대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벌써 20년 째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다음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그들에게 견고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며,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시. 127:3) 그렇습니다. 우리교회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우리들의 상급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서울교회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서울교회 담을 넘어 온 지역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담임목사 박노철



제13대 장로후보선출을 위한 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 -제13대 장로후보 20명 선출-

우리교회 제13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제직(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협력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장로 후보는 집사와 시무권사를 대상으로 하되 2013년 임직한 자들과 2014년 은퇴 예정인 자들은

교회 규정상 제외된다.

오늘 제직회에서 선출된 13대 장로후보 20명과 14대 집사후보, 13대 권사후보는 5월11일자 순례자에 간지로 게재될 예정이며 5월18일 공동의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항존직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성도들의 깊은 기도로 준비되어 은혜 중에 이번 선거가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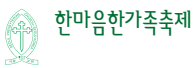
제직들은 오늘 투표용지 교환권 수령토록

-3부예배후 찬양예배전까지 2층 로비에서-

오늘 찬양예배직후 개최되는 제13대장로 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에 참석할 제직들은 3부예배 후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제직자격 확인과 함께 투표용지교환권을꼭수령하기바란다. (대리수령은 불가함)

이에 앞서 모든 제직들은 3부예배 후 배포되는

장로 후보사진명단을 수령하여 제직회 참석전까지 적합한 분을 미리 기도 중에 준비하여 오기 바란다. 기표는 각 제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10명만 하게 되고 득표순에 따라 20명을 공동의회에추천하게 된다.



한마음한가족축제

우리끼리의 즐거움 보다는...



조정식 장로
(한마음한가족축제 준비위원장)

우리 교회는 2년마다 전교인 체육대회로 성도간의 화합을 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올 해도 청년부를 주축으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행사를 준비하며 손꼽아 5월 6일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했던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슬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구조되지 못한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구조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또 형제, 자매,

친구들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야 함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당회와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고 허락하여 주시길 그 때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서울교회 온 교인이 이번 체육대회의 명칭과 같이 '한마음 한가족'의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슬픔에 동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이라 생각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했으면 합니다.

5월 6일 전교인 축제가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그 날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보다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또 세상에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9)

(문 129) 욥기5:13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은 고전3:19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인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영감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답) 욥5:13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며 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전반부는 고전3:19에서 인용되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관해 이런 확신을 가졌었다면 욥42:7에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관해 한 말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면 그들이 보여준 기본 입장은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42:7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른 말을 했어도 잘못 되었다 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교훈을 바른 것으로 수용했지만 욥의 하나님 사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직접교훈을 받은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공정하고 불친절하셨다고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 뻔뻔스럽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욥은 '무지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42:3)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기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잘못 다루신다는 것이지 욥의 하나님 사상 전부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1장과 2장에 나오는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이나 하는 질문처럼 그것이 누가 한 말이냐가 영감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진실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바스 말은 고전3:19에 한번 인용이 되었으나 두 친구의 말은 인용된 적도 없습니다.

(다음 주 계속)

초대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스테반회와 제1권사회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께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살롬권사회원과 사라여전도회원,

아브라함 남침교회 및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오는 7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만나홀로 꼭 오세요.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스테반회장 최차순 집사

제1권사회장 김일순 권사 올림

부부 힐링 특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머니 힐링스쿨에서 성도들과 지역주민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부부가 함께 공감하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귀한 만남의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란다.

시간: 5월10일(토) 5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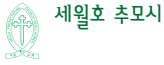
대상: 부부

강사: 양세라 목사

주제: 부부의 연합과 은혜

내용: 부부의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DISC 검사및 공동체워킹



세일호 추모시

어미의 눈물

곱디 고운 열일곱 아들 딸들이
푸르른 땀 방울 흠뻑 흘리며
"엄마"하고 달려 나오는
너의 심장소리 쿵쿵 들려 오는구나

수학여행으로
몇 날을 기다리며 설레더니
오늘도 내일도...
말없이 떠내려가는 시간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이여

멈춰진 시간
맘껏 피어보지도 못한
생때 같은 자식들
어미 가슴에 깊이 묻고
눈물, 눈물이
출렁이는 진도 앞바다 거친 파도 되어
덧난 명치끝 시퍼렇게 두드린다

애들아!
선 밥 번다고 더 돌보지 못하고
자식을 버리고 밥을 먹는 어미
엄마 헛 목숨
추운 너희들 모닥불로 사르면 안되겠니

나라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알량한 목숨 때문에
영혼을 버리는 비겁한 샅꾼들
우리를 용서하지 마라

천길 만길
차디찬 바다에 떨어진
하얀 국화 한 송이
어미 심장에 붉게 꽃혀 피어나고

고귀한 목숨
하늘 낙원에 영원히 살아있는
위대한 그대들이여

하늘의 형형(炯炯)한 큰 별 되어
이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이 시대의 생명선
이 나라의 진정한 선장이어라

신동기 권사 (12교구, 시인)



천세중 목사 (고등부 지도)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사교육의 일 번지인 대치동 엄마들이 믿음 가운데 세 로이 결단 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 된 "고등부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신앙성경 여행: 복음 서의 엄마들과 여성들" 성경공부 모임 (세. 바. 망 -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에서 강의 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5월 한 달 4회에 걸쳐 싣기로 한다. (편집부 주)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혈하는 여성은 부정하다고 취급되었는데, 이런 여성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런 여성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해지며, 이런 여인이 만졌던 짐그릇은 깨어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레 15:1-15).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만났지만 가지고 있던 물질만 허비했을 뿐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합니다(막 5:26). 이 여인은 종교적,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런 5종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의 삶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평화와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
주님의 터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

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변화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과 주님을 향해 내민 간절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 (27절)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소식에 늘 노출되면 우리는 불안함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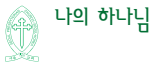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평화와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본문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댍니다. 터치(Touch)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서로 터치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터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주님의 터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바라보

시며 선언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34절).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였던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셨고, 그 여인은 다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2년 만에 되찾은 행복!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과 사랑의 터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가족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설교사역도고교육
일정변경**
-매월 네 번째 주일로-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하던 설교사역도고교육(담당 박영준 목사)이 매월 네 번째 주일로 옮겨졌다. 따라서 이번 5월은 25일(주) 오후 3시 20분에 한다. 장소는 종전과 같은 506호이다.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아말렉 전투에서 손 들고 있는 모세와 손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



홍해를 가르는 모세

이갑진 장로(12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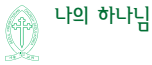
오랜만에 손녀, 손자가 집에 왔다. 며느리가 카톡에 찍힌 그림 두 개를 보여 주었다. 다섯 살짜리 태민이가 유아부 예배시간에 설교말씀을 듣고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의 사람이 누군데?” “모세” “아, 그렇구나. 그럼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인지 설명 좀 해 줄래?” “모세 할아버지가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요, 손에 이것은요, 지팡이요” 하며 설명을 덧붙인다.

“그럼, 이 그림은 무엇인데?” “그건요,

모세 할아버지의 팔을 들어 주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팔을 들어 주고 있는데?”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져서 그러는 거래요. 팔이 아프잖아요”

어려서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 듣는 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린 영혼들에게 들어가 우리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순수한 영혼을 보며, 짹짹 닫힌 너의 영혼의 문을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

‘콩나물 시루의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귀한 선물 효은이



김경철 집사 백승희 집사(12교구)

효은아 아기천사로 엄마 아빠와 만났지 벌써 4년이 되었구나. 효은이로 인해 웃고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엄마 아빠는 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효은이가 엄마 아빠 딸이 되어 예전에 미처 몰랐던 행복을 알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효은아 엄마 아빠는 우리 효은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 친구들을 잘 도와 주고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예의바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이런 효은이가 되도록 기도할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늘 효은이를 응원할게. 가끔씩 말 안듣고 고집 부리면 무섭게 혼

내기도 하겠지만 잘할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힘들어 할때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엄마 아빠가 될게.

효은아! 우리가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자.

엄마 아빠가

동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5월7일(수) 장로교연합총회 헌법위원회를 소집한다.
- 득녀: 박영준 목사 이현순 성도(5.1)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선교회 뱀뱀전도회(5.4)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5.11)
- 금주의 식사 : 짜장면 (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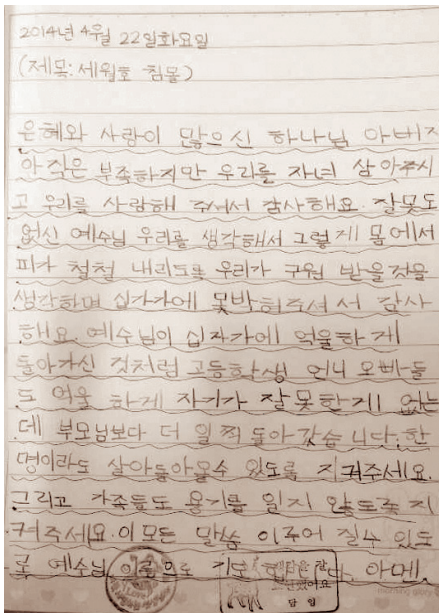


유나의 일기

오유나 (유년부)

4월 22일 세월호 침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몸에서 피가 철철 내리도록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박혀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게 없는데 부모님보다 더 일찍 돌아갔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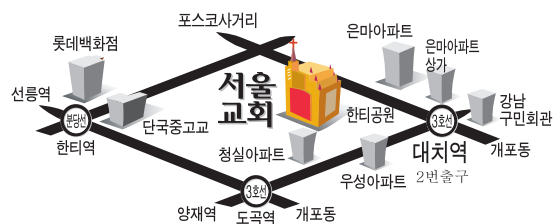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4년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2.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교회 모든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3. 세월호 침몰 사건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수습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